01~43-건설1월 1904.6.17 2:34 AM 페이지28

SOC 투자확대를위한제도개선선도

조경태 국회의원(건설교통혁신포럼회장)

“ SOC 투자 확대로 침체된 건설 경기 진작시켜야 ”

내수 부진과수출증가율 둔화로 나라 경제가 날로 위축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8일국회의원회관에서는뜻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초선 의원이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여론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바로 조경태 국회의원이다.

건설교통혁신포럼의 회장이기도 한 조 의원은 이날 ‘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 토론회에서 “ 건설교통관련발주처관계자들과건설단체상호간의토론회와간담회를통해건설혁신전략 및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방안을발굴하여실질적인제도개선을이루어낼계획 ”이라고말했다.

조의원은제17대국회상임위원회가결정된 후 부산대 토목공학 박사로서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가적합하다는평가를받았다.

“ 국회도이제전문가시대가열렸습니다. 사회 각분야에서풍부한 경험을쌓은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비롯한 활발한 의정 활동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제공하는 한편, 행정부 견제라는국회본연의임무를수행하는데있어많은이점들이있습니다. ”

그러나, 정작조의원은지난해열렸던정기국회에 대해아쉬움이많다. 굳은각오로 치열하게준비하였고, 건설제도 개선을통한서민생활안전과국가정책의올바른추진을 위한건전한비판등을제시하고자했지만 당초 목표하였던 바를 제대로 이루어내지못한것같기때문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또 다른 의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제활성화다. 극심한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최근의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진력하자는것이다. 조의원이제시한불황타개책은‘ 건설업활성화를통한경기진작 ’.

경기회복을위한뚜렷한방안이없는현상황에서SOC 투자확대등을통한건설경기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국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지방 경기에 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습니다. 부동산가격안정을위한투기억제시책은지속하면서건설경기를활성화하는정책의추진이필요한시점이지요. ”

조 의원은 사업 추진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 사업예산(15조원)의 57%를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정부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민간 투자의 확대를 지원하고 민자 · 외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조의원은국가경제및지역경제,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건설산업의기여도에 비해 그평판이 매우 낮은 실정인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조 의원은 건설산업이 각종 부패와 특혜 시비, 부실공사 등으로 그 기여도에 비해 평판이 매우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업계내부의 자성과발주처가함께노력하여건설산업의 혁신을이루어낸다면국민들의신뢰도회복될것이라고조언했다.

끝으로, 조의원은극심한경기침체에따른물량부족과이에따른과잉경쟁등으로 수익성악화와기술력부족등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는건설업계에대해“ 고수익을 창출할수있는새로운사업영역을개척해 나아가야할것 ”이라고지적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고수익 창출의 영역 개척과경영혁신이조화를이뤄야만선진건설업체와의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강조했다.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